

4·29 광주 서구 을 국회의원 보선 예비후보 릴레이 인터뷰

<1>새누리당 정 승

“지역현안 챙기는 ‘예산 불독’ 되겠다”

전국 네 곳에서 치러지는 4·29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운데 광주 서구 을 선거는 최대 관심 지역이다. 무소속 찬정배 후보 등 야권 후보 난립 구도와 새정치연합에 대한 지역 민심의 실망감 등이 혼재한 가운데 정승 새누리당 후보가 ‘제2의 이정현’을 내세우며 도전장을 내밀어 선거 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승 후보가 승리한다면 전남의 이정현 의원(순천·곡성)에 이어 광주에서 다시 한 번 지역구도의 벽을 무너뜨리는 한국 정치사에 새로운 이정표를 세우게 된다. 이 경우 내년 총선을 앞두고 광주·전남 정치 지형에 지각 변동을 몰고 올 것으로 보인다.

정승 후보는 광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사즉생(死即生)의 심경을 강조했다. 거진 ‘명량(鳴梁)의 바다를 바라보는 이순신 장군의 심정으로 새정치연합의 거대하고 강력한 일당 독점 구조에 맞서고 있다는 것이다. 광주의 발전을 위해 그 누군가는 해야 할 일이고, 이뤄져야 할 일이지 민심의 바다에 모든 것을 던지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보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 지역 민심은 어떻습니까.
▲ 지역민들께서 “고생한다. 이번에는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반응을 자주 보인다. 관심과 격려를 많이 보내줘 힘이 난다. 특히, 서구 을 지역민들은 과거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구정장을 두 번이나 당선시키고 19대 총선에서 새누리당 이정현 후보에 40% 가까운 지지를 보였다. 이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하는 흐름을 보였다는 점에서 고무적이다.

- 지역 민심의 요구를 집약한다면.
▲ 우선 자녀 일자리 문제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 경제와 복지 문제에 대한 시름도 깊었다. 특히, 광주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들도 많았다. 당보다는 누가 광주의 발전을 이끌 인물이나는 점을 두고 투표하겠다는 목소리가 컸다.

- 하루 일정과 선거 전략은.
▲ 새벽 4시30분에 나서 밤 12시에나 집에 들어간다. 지역민들이 계신 곳은 모두 찾아가고. 임기 1년의 보궐선거라는 점에서 ‘누가 더 일을 잘 할 수 있느냐’를 판단해 주시라고 호소 드린다. ‘1년 동안 한 번만 써 봐 달라. 혼신의 힘을 다해 지역 발전을 이끌어 내겠다.’ 이것이 나의 유일한 선거 전략이다.



이순신 장군 심정으로 일당 독점 구조 맞설 것 나는 현정부의 ‘신상품’ 당 전폭 지원 약속받아

- 타후보에 비해 강점이 있다면.
▲ (나는) 현 정부에서 바로 나온 ‘신상품’이다. 30년 공직생활을 통해 구축한 현 정부 내의 인적 네트워크가 가장 넓다. 여당의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받았다. 광주에서 고등학교(동신고), 대학교(전남대)를 나온 진정한 광주의 아들이자 후보다. 결혼 생활도 서구에서 시작했고 양가 부모형제들이 모두 광주에 거주하신다. 특히,

지역 민심의 변화 욕구와 지역구도 타파를 실현할 수 있는 책임자다.

- ‘7+1이 8보다 크다’는 선거 구호의 의미는.
▲ 1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엄청난 변화를 이끌어 내게 된다. 제가 당선된다면 광주지역 7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들이 나와 치열한 경쟁에 나설 수밖에 없게 된다. 그 효과는 8명의 새정치연합 의원만 있는 것보다 백배, 천배 크다. 더 나아가 새정치연합도 정신 차리게 되고 새누리당의 변화도 이끌어 낸다.

- 새누리당의 지원은.
▲ 저를 영입한 김무성 대표 및 당 지도부의 광주에 대한 지원의지는 확고하다. 내가 당선된다면 최고위원에 임명하겠다고 공약했다. 선거 기간 내에 광주를 3회 정도 방문할 것으로 알고 있다. 새누리당의 광주에 대한 진정성을 보일 것이다.

- 정 승 만의 공약이 있다면.
▲ 우선, 광주지역 청년 일자리 센터를 만들겠다. 나아가 지방대 졸업생 취업을 위한 법적인 토대도 만들겠다. ‘예산 불독’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듯이 지역 예산과 현안을 챙기겠다. 마르동 프로젝트를 통해 서구의 미래를 바꿔놓겠다.

- 호남 인맥 소외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인 ‘국민 대통령’이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 소홀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점차 좋아지고 있다. 근본적으로는 호남 인제가 중용될 수 있도록 발언권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져야 한다. 제가 당선된다면 호남 인재의 폭 넓은 등용을 위해 십자가를 지겠다.

- 새누리당의 호남에 대한 진정성도 시원치 않다.
▲ 호남에 대한 여당의 자세가 많이 변했다. 만수무답하지 않지만 과거에 비하면 천양지차다. 제가 당선된다면 새누리당의 변화는 더욱 커질 것이다. 부족하고 미흡한 부분은 제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

- 지역민께 드릴 말씀이 있다면.
▲ 저를 키워준 광주의 발전을 위해 온몸을 바치겠다. 지역 현안은 ‘불독’처럼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지역 주민들을 ‘정승’으로 모시겠다. 1년 동안 기회를 주시고, 차기 총선에서 냉엄하게 평가해 달라고 감히 요청 드린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사진=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29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리관유 전 총리 국장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이 행사장인 싱가포르국립대학 문화센터(UCC)에서 인내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리관유 싱가포르 전 총리 장례식 엄수

박대통령 조문 후 오늘 귀국
km 떨어진 UCC로 운구됐다. 장례식이 끝나고서 리 전 총리의 시신은 만다이 화장장으로 옮겨져 가족과 측근들만 참석한 가운데 화장됐다. 리 전 총리는 지난달 5일 폐렴으로 입원한 뒤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에 의존하다가 23일 향년 91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박 대통령이 국의 정상급 지도자의 장례식에 직접 참석한 것은 취임 이후 이번이 처음이다. 현직 대통령의 해외 조문은 지난 2000년 6월8일 김대중 당시 대통령이 오부치 게이조(小淵惠三) 전 일본 총리 장례행사에 참석한 이래 15년 만이다.

박 대통령은 장례식 시작에 앞서 각국 정상들과 1시간여 동안 인사를 나눴지만, 아베 총리와는 별도로 만날 기회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캄보디아 훈 센 총리, 인도네시아 조코위도도 대통령, 미얀마 테인 세인 대통령과 인사를 나눴다. 박 대통령은 30일 오전 귀국한다. /박지경기자 ikpark@연합뉴스

식약처장·농식품부 대변인 역임... 친화력 강한 마당발

정 승 누구인가

정승 새누리당 예비 후보는 완도 출신으로 동신고와 전남대를 졸업했으며 대학 3학년 때, 23회 행정고시에 합격, 공직에 입문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초대 식약처장을 지냈으며 차기 농식품부 장관 1순위로 꼽혀왔다. 광주 서구 을 보궐선거를 앞두고 새누리당이 삼고초려를 거쳐 영입했다. 업무 추진력과 기획력이 뛰어나고 일처리가 꼼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농식품부 대변인을 두 차례나 지내는 등 소통 부문에도 강점이 있으며 업무에 대한 열정과 소신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유의 친화력으로 관계에서 보기 드문 마당발로 알려졌다. 가족으로는 부인 한수명(47)씨 사이에 2남을 두고 있다.

▲1958년 완도출생 ▲동신고 ▲전남대 경제학 학사 ▲강원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과장 ▲농림부 기획예산담당관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본부장 ▲농림수산식품부 제2차관 ▲(사)말산업증양회 회장 ▲초대 식약처장

정승 후보 5대 공약

- ▲국가 청년 일자리 창출센터' 설립 및 청년 일자리 세일즈 활동
-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등 지역현안 예산 확보
- ▲자녀·어르신 건강관리 및 복지시스템 확충
- ▲사회적 기업 및 협동조합 지원 강화 통한 여성일자리 확대
- ▲음식업 발전 등 소상공인 자영업 활성화

獨 고의추락 여객기 부기장 우울증·시력도 문제

NYT “안과 전문의 진료”
150명이 탄 독일 저먼윙스 여객기를 고의 추락시켜 전원 사망케 한 지목된 안드레아스 루비츠(28) 부기장이 사고 전 시력 문제를 겪은 사실이 새로 드러났다.

뉴욕타임스(NYT)와 월스트리트저널(WSJ)은 당국이 루비츠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결과 그가 안과 전문의에게 시력 문제와 관련한 진료를 받은 사실을 포착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루비츠는 시력 문제를 우울증 사실과 같이 회사 측에 숨긴 것으로 보이며 이는 오는 7월 경선 예정인 비행 자격을 박탈당하지 않기 위한 것이라는 추측이 나온다고 WSJ은 전했다.

다만, 수사 당국은 현재 병원 측으로부터 루비츠의 진료 기록을 받지 못한 상황

이어서 그의 시력 문제가 비행에 못하게 될 정도로 심각했는지 여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루비츠가 안과 진료를 받은 곳은 뒤셀도르프 대학병원으로 추정된다. 같은 날 독일 일간 디벨트는 당국이 루비츠의 자택에서 정신질환 치료약물을 다수 발견했으며 그가 정신 질환을 앓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한 수사 관계자는 루비츠가 신경과와 정신과 의사들에게 수차례 진료를 받았다고 말했다.

앞서 당국은 루비츠의 자택에서 병가를 위해 발급된 의료 진단서들을 찾아냈으며 이중 사고 당일용 진단서는 찢긴 상태였다. 사고를 조사 중인 프랑크 검찰은 루비츠가 자신을 포함해 150명이 탄 여객기를 알프스 산에 고의로 충돌시킨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연합뉴스

밝은광주안과

노안(老眼)도 치료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광고를 보면서 돋보기를 쓰고 보시나요? 아니면, 쓰던 안경을 벗고 보시나요?

노안시력교정수술로 편한 생활이 가능합니다.

1566-9988

수술 방법: 라식수술을 하듯 각막을 깎아 초점을 맞춰 노안치료, 인공 수정체 삽입으로 백내장과 함께 노안치료, 각막에 초점밀 미세 레이저를 삽입하여 노안치료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140611-중-59153호

의료광고심의의뢰 제150204-중-68156호

시엘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배아생성의료기관

아이소망

시엘병원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외수정수술 | 산부인과 복강경수술 | 습관성 유산 · 종합건강검진센터

www.clwhivf.com | www.시엘병원.com ☎(062)368-1700